

수피아여중·순천팔마중, 소년체전 금빛 피날레

농구 여중부 창단 첫 2연패
배구 남중부 첫 시즌 3관왕
광주 메달 56개 작년보다 줄어
전남 메달 76개 입상 종목 증가



광주 수피아여중이 창단 첫 소년체전 농구 여중부 2연패와 함께 시즌 3관왕, 순천팔마중은 6년만의 소년체전 우승과 함께 창단 첫 시즌 3관왕에 오르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지막 날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광주는 수피아여중의 금메달 외에 소프트 테니스 여초부와 양궁 남중부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6개 총 56개의 메달로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양궁, 태권도, 레슬링 등이 예상 밖으로 부진하며 지난해(금 22 은 14 동 25 합계 61)보다 전체적으로 메달 수가 줄어든 점이 아쉽다.

전남은 순천팔마중의 금메달과 광영중의 은메달을 마지막으로 금메달 2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1개 총 76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지난해(금 15 은 19 동 23 합계 57)보다 다양한 종목에서 더 많은 메달 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 여자농구·전남 남자배구 우승
수피아여중은 30일 울산과학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농구 여중부 결승에서 부산 동주여중을 70-5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피아여중이 30일 울산과학대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 여중부 결승에서 부산 동주여중을 완파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사진 왼쪽). 순천팔마중도 이날 울산체일고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남중부 결승에서 충북 제천중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수피아여중이 창단 첫 소년체전 농구 여중부 2연패와 함께 시즌 3관왕, 순천팔마중은 6년만의 소년체전 우승과 함께 창단 첫 시즌 3관왕에 오르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지막 날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2001년 부산소년체전 이후 2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던 수피아여중은 올해 사상 첫 소년체전 2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최강 실력을 재확인했다.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과 2023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 이은 올시즌 3관왕이기도 하다.

수피아여중은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1회전 온양여중과의 경기를 53-46으로 이긴 뒤 8강 울산 연암중(86-50), 4강 경남 마산여중(82-65), 그리고 결승까지 승승장구하며 금메달을 품어안았다. 주장이자 특급가드 임연서(3년)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순천팔마중은 이날 울산체일고 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남중부 결승에서 충북제천중에 세트스코어 2-0(25-22 25-23)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년체전 우승은 2017년 제46회 소년체전 금메달 이후 6년 만이다.

순천팔마중은 2023 춘계 전국 중고배구 연맹전과 제78회 전국중고배구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소년체전까지 정상에 오르

며 지난 2002년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3월 춘계중고배구연맹전 문일중과 경기 패배 이후 15연승을 달리면서 막강한 실력을 과시했다.

순천팔마중의 소년체전은 경남 함안중과의 경기가 고비였다. 체전 첫 경기라는 중압감 때문인지 고전 끝에 경남 함안중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2-1(25-13 33-35 15-11)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후로는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8강 경북대사대부중(2-0), 4강 전북 남성중(2-0)을 거쳐 결승에서도 한수 위의 실력을 발휘하며 올시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장이자 레프트로 팀의 승리를 이끈 이승일(3년)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전남 광영중은 축구 여중부 결승에서 경남 진주여중에 0-4로 지면서 은메달을 기록했다. 결승에서의 패배는 아쉽지만 광영중은 소년체전 첫 은메달을 획득하며 다음 체전을 기약했다.

◇광주 메달 56개·전남 메달 76개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6개 총 5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역도에서 광주체육 김제량(3년)이 3관왕에 올랐고 검도 남초부에서 광주선발팀이 코로나19로 인해 미 개최된 대회를 제외하고 제48회와 제51회에 이어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광주체육의 저력을 과시했다. 근대3종에서는 소년체전 첫 금메달 획득과 함께 역대 최고의 성적(금2, 은1, 동2)을 거뒀다. 에어로빅합합에서도 박태영(월봉중 3년)이 2관왕에 올랐다. 검도(허경도), 근대3종(최지웅), 바둑(조가은), 농구(임연서)에서 최우수선수 4명을 배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효자종목인 양궁에서 금메달 없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에 그쳤고 태권도와 레슬링도 각각 금메달 1개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메달 수가 줄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대표선수로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준 선수

들이 자랑스럽다”며 “종목단체 임원들과 지도자들의 성과이고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다. 학교체육과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1개 총 7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단체대진 종목 및 기록종목 등 각종 종별 우승과 더불어, 다관왕과 다연패, 최우수선수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친 점이 눈에 띈다. 배구 남중부 이승일 외에 바둑에서도 한국바둑중 남중부(서지산, 임지호, 최경서)와 여중부(박지우, 임지우, 최지운)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작년에 이어 남녀중등부를 석권해 2연패를 차지했고, 남중부 최경서와 여중부 박지우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꿈나무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전국소년체전에서 희망의 불씨를 이어나가 올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진화 기자

“대표팀 가서는 곳은 일 도맡을래요”

소년체전 농구 여중부 MVP
수피아여중 가드 임연서

“첫 경기 때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요. 남은 경기는 잘하자고 마음먹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수피아여중 임연서(3년·가드)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 여중부 MVP로 선정됐다. 수피아여중의 사상 첫 소년체전 2연패를 이끈 일등공신이자 팀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다.

임연서는 사실상 결승전이던 대회 첫 경기 온양여중전에서 17득점을 기록했고 8강 연암중과의 경기에서 24득점, 4강 마산여중전에서 36득점, 그리고 결승 동주여중과의 경기는 20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임연서는 온양여중전이 끝난 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쏟았다. 이겼지만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 자책하는 마음이 컸던 탓이다.

임연서는 “온양여중과는 워낙 많이 경기를 해봐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마크가 됐는데 잘 풀어내지 못했다”면서 “그럴 땐 제가 수비라도 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렇지만 팀 선수들이 잘해줘서 이길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며 남은 경기 활약을 다짐했고 그 다짐을 지켜 동료들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었다.

임연서는 소년체전 금메달과 함께 생애 첫 태극마크도 달았다. 최근 대한민국농구 협회가 발표한 2023 국제농구연맹(FIBA)



임연서

임연서는 “훈련할 때 키 큰 언니들도 많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많아서 대표팀에 뽑힐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그저 열심히만 하고 오자는 생각이었는데 대표팀에 포함이 돼서 정말 기분이 좋다”면서 “대표팀에 피해야 할 생각이다”고 다짐했다. /최진화 기자

KIA 앤더슨·정해영·황대인 2군행

김종국 감독 “조정기간·휴식”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앤더슨과 마무리 정해영 등 주전들을 대거 제외하고 백업 선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김종국 KIA 감독은 30일 kt위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큰 변화를 줬다. 투수 앤더슨과 마무리 투수 정해영, 불펜 감대유, 내야수 황대인, 윤도현 등 주축 선수들의 1군 엔트리 등록을 말소했다.

갈길 바쁜 KIA였으나 지난주 한화와의 LG에 2연속 루징 시리즈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김 감독은 5월 한 달간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7.71로 부진한 외인 앤더슨과 5월 내내 흔들리며 실점을 거듭한 마무리 정해영 등 기대에 못 미친 선수들을 대거 1군 엔트리에 제외했다. 이번 시즌 36경기 타율 0.212 3홈런에 그쳤던 황대인 역시 2군에서 재정비 지시가 내려졌다. /조혜원 기자

경기에 앞서 김종국 KIA 감독은 “정해영은 조정기간을 가져야 한다. 1군에서 밸런스 문제를 찾기 쉽지 않다. 퓨처스에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 갖고 풀업한다. 앤더슨은 휴식자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1주일 정도 밸런스 운동과 불펜 피칭만 할 것 같다. 이후 퓨처스 경기에 출전해서 구위 등 정확하게 올라온다면 풀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전부 집단 마무리로 대기한다. 기세나 구위로는 최지민이 유력하지만 풀업은 처음이다. 셋업맨과 마무리는 많이 다르다. 우선 기회는 최지민에게 가지지만 상황에 맞춰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와의 1차전을 앞둔 KIA는 김석환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KIA는 김석환을 비롯해 내야수 최정용, 투수 박도규, 황동하, 김재열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조혜원 기자

‘매치퀸’ 성유진, 이번엔 타이틀 방어 국내 원정 김효주·최혜진과 우승 경쟁

내일 개막 롯데오픈 출격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른 성유진이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성유진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배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롯데오픈(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성유진은 LPGA투어 롯데 챔피언십을 다녀온 뒤 치른 4차례 대회에서 우승 한번을 포함해 3년 10회에 드는 기파라 상수세다. 상금랭킹 5위와 대상 포인트 9위가 말해주듯 KLPGA투어의 간판급 선수로 손색이 없다.

경기력과 자신감이 절정인 성유진은 지

난해 나흘 동안 15언더파를 써낸 좋은 기억이 생생한 배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위해 E1 캐리티오픈을 건너뛰고 체력을 비축했다.

성유진은 “손가락을 다쳐 조심스럽지만, 샷과 퍼트 감각은 정말 좋다. 아프지 않고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경계 대상은 국내 원정에 나선 LPGA투어 멤버 김효주와 최혜진이다.

김효주는 “오랜만에 출전하는 KLPGA투어라 설레면서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컨디션과 샷도 나쁘지 않다. 퍼트는 더 좋은 감각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성유진

데, 일단 이번 대회 톱10을 목표로 하면서 우승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진은 “아직 후원사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없어 더 욕심이 나는 것 이 사실”이라며 “지난 대회에서 아쉬웠던 티샷과 퍼트를 열심히 보완하고 있다. 1라운드부터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앞세워 KLPGA투어 최고 인기 스타로 부상한 방신실은 이번 롯데오픈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상금랭킹 1, 2위인 박지영, 박형경, 그리고 박민지 등 KLPGA투어를 대표하는 ‘3박’도 이번 대회를 건너뛴다. /연합뉴스

악재·경사 속 시즌 끝 손흥민 귀국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지난 시즌 후 예상치 못한 악재와 경사가 번갈아 찾아와 다시다난했던 또 한 시즌을 보낸 손흥민(토트넘)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9일 토트넘이 4-1로 이긴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EPL 38라운드 경기가 손흥민의 2022-2023시즌 마지막 공식전이었다.

선발로 출전, 경기 시작 2분 만에 헤리 케인의 골을 도운 손흥민은 후반 31분 히사를 리송과 교체로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파란만장했던 한 시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시즌 공식전 전체 득점이 24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엔 14골로 줄었다. 어시스



손흥민

트스는 6개를 기록,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 20개(14골 6도움)는 달성했다.

후반기 토트넘의 부침급 손흥민에게 선수로서 경사도 찾아왔다. 지난달 8일 브라이트와의 30라운드(2-1 승)에서 EPL 통산 100호 골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제 손흥민의 시선은 국가대표팀을 향한다. 2일 소집 예정인 클린스만호는 16일 폐루, 20일 엘살바도르와 국내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